

고정희 시의 '수유리' 연구

- 「화육제별사(化肉祭別詞)」를 중심으로 -

박선희* · 김문주**

|| 차례 ||

1. 들어가며
2. 한국신학대학과 사제-시인으로서의 삶
3. 내면 성소(聖所)로서의 시적 공간
4. '수유리'의 삶과 포기할 수 없는 기원
5. 나오며

【국문초록】

‘수유리’는 고정희 시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민중·여성’의 기원(起源) 공간이다. 이 논문은 「화육제별사(化肉祭別詞)」를 중심으로 고정희 시를 관통하는 시 정신의 형성 배경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수유리’는 고정희가 공부했던 한국신학대학의 주소지이자 1970년대 민중신학의 거점이었으며, 현실주의-기독교 영성시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희 시세계의 발원점이다. ‘수유리’는 시인의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던 현실 장소이면서 그녀의 정신세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상징 공간이다. 「화육제별사」는 고정희 시 정신의 핵심 거소(居所)라고 할 수 있는 ‘수유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편이다. 고정희 시의 발화점이면서, 이후 시세계의 향방을 예고하는 ‘수유리’의 구체적 의미를 「화육제별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의 수난에서 당대 민중의 모습을 보며 신의 소명을 자각하고 이에 응답하는 과정이 이 작품 속에 형상화되어 있다. 시인이자 신학도로서 당대 현실과 자신의 삶을 사유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그린 이 작품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현실, 신학과 문학이 조우하는 의미 있는 사례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를 보게 된다. ‘수유리’는 1980년대 기독교-민중문학의 선구자로서 고정희 시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핵심적인 현실/상징 장소이다.

주제어 : 고정희, 수유리, 장소, 한국신학대학, 민중, 민중신학, 화육제별사, 성소

1. 들어가며

고정희 시의 주요 시적 모티브인 ‘기독교’, ‘민중’, ‘여성’은 ‘수유리’라는 현실 장소의 경험에서 기원한다. 따라서 ‘수유리’의 내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은 고정희의 문학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유리는 고정희에게 “실존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한”¹⁾ 현실 장소이며, 그녀의 정신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상징 공간이다. ‘수유리’에는 한국신학대학이 있었으며, 그녀는 그곳에서 삶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준 민중신학을 만났다. 고정희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에 한국신학대학은 당대 민주화 운동의 주요 거소(居所)였으며, 안병무 교수가 중심이 되었던 현실주의-신학의 산실이었다. ‘한국신학대학’과 ‘민중신학’은 고정희의 ‘수유리’를 구성하는 두 축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문학세계를 형성하는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 한국신학대학에서 경험하였던 일련의 저항적인 사건들²⁾과 안병무의 신학은 고정희 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민중’, ‘여성’을 구체적으로 사유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특히 그녀가 한국신학대학에서 만났던 안병무의 민중신학은 당대 민중의 수난사를 역사적 예수의 수난 속에서 재해석하고 예수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서 되시는³⁾

1) 에드워드 쉘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공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02.

2) 이 사건은 ‘교수 학생 삭발’, ‘교기 해체’, ‘문동환·안병무 교수의 해임’ 등을 말한다.

소명의식의 각성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이와 같은 신학과 문학의 접촉 지점인 고정희의 '수유리' 정신은 1970년대라는 암울한 민족적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만 했던 당대 문학의 향방과 무관하지 않다. 이 논문이 주목한 『화육제별사』는 이러한 체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고정희 시정신의 발원점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시의 장소로서의 수유리’에 대한 논의는 연구자의 앞선 논문⁴⁾에서 일부 살펴본바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고정희 문학의 정신적인 기지가 된 ‘사건의 장소’로서의 ‘수유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화육제별사』를 통해서 가지 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1970년대 한국신학대학의 사건들과 신학적 내용들이 고정희의 시에 어떻게 형상화되고, 그의 정신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당대 문학과는 또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구체적인 삶의 체험들이 고정희의 문학과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제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의 삶의 향방과 문학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성소(聖所)’ 개념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고정희는 “고난주간과 축제 기간만 돌아오면 흥역처럼 따라다녔던 젊은 날의 고민과 갈등과 신념”⁵⁾을 『화육제별사』에서 그리고자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 이후 고정희의 시에 ‘수유리’의 체험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어떤 의미로 자리 잡게 되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들을 통해 고정희 문학에서 ‘수유리’의 의미와 내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는 현실과 문학, 그리고 종교적 영성이 조우하는 의미 있는 사례에

3) 수난은 고정희에게 민중으로서 사는 삶의 길이였으며 고난당하는 이들과 자신을 일치시켰던 예수의 삶을 되사는 통로였다고 김문주는 해석한 바 있다(『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p.133).

4) 박선희, 『고정희 시의 장소 표상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5) 고정희, 『초혼제』, 창작과 비평사, 1983.

관한 연구이며, 현실 체험이 한 시인의 정신세계에 어떤 양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가에 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신학대학과 사제-시인으로서의 삶

한국신학대학과 민중신학이 고정희 시의 중요한 자양(滋養)이라면, 이는 대학 시절의 스승들⁶⁾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그 중심에 안병무·문동환 교수가 있다. 이들은 고정희가 한국신학대학 재학 중 경험한 일련의 사건들-교수·학생 삭발과 교기(校旗) 찢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⁷⁾ 이 사건들은 여러 시편들에 형상화되어 있다. 삭발사건⁸⁾은 『환상대학시편6』(『눈물꽃』, 1986)에, 교기 찢기 사건은 『기(旗)』(『실낙원 기행』, 1981)와 『화육제 별사6』(『초혼제』, 1983) 등에 형상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6) 고정희는 한 엔솔로지에서 “나는 제2의 스승을 한신에서 만났다. <…>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환경과 분위기였지만 한국신학대학이 생명처럼 계승해 내려온 학문적 엄격성과 자율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유일회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한 개인의 운명과 세계 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최초의 프리즘을 준 곳이었다. <…> 한신이 안고 있는 ‘70년대의 시대적 정치적 소용돌이’는 그 후 내 문단에 깊은 영향을 줬다. 그것은 때로 큰 충격으로 다가오거나 혹은 역사 속에 진실이 어떻게 개입되는가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보여주었다”라며 대학 스승들에게서 받은 영향을 고백한바 있다(고정희, 『외곽을 걸어온 고독함으로』, 박완서 외, 『자유로운 여성』, 열음사, 1984, p.139).

7) 김남일, 『민중신학자 안병무 평전』, 사계절, 2007, pp.199-200.

8) 고정희는 『환상대학시편·6-70년대 초기(弔旗)에 대한 추억』에서 “나의 대학 시절은 불온했습니다/개교기념일인 197×년 4월 19일/수유리의 푸른 하늘 밑에서는/교수와 학생들의 삭발이 단행되었”이라며 그 사건이 “197×년 4월 19일”에 발생했다고 적고 있는 데 반해, 김남일은 ‘1973년 늦가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김남일, 앞의 책)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병무의 평전을 쓴 김남일의 기록이 전체적인 연속성과 소상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고정희의 기억은 이 사건을 4·19의 연속선상에서, 즉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저항적 사건으로서 받아들여려는 (무)의식의 소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안병무·문동환 교수의 해임을 초래하였고, 고정희는 이들 스승의 모습을 우는 새끼소를 떼어놓고 “법궤 메고 떠나간”, “젓소 두 마리”로 시화한 바 있다.⁹⁾ 특히 안병무로부터 민중신학의 세례를 받은 그녀에게 그의 교수직 해임은 큰 충격을 주었는데, 고정희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칼)바람’의 이미지는 이 사건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떠다니는 혼들은 다 날아와/대학시절 수유리 숲정이
흔들릴 때/징그러운 바람 소리 수유리에 매달려/자느냐 자느냐 자느냐/갈가
리 찢기는 우리 실존 그러안고/뉘 모를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쨍그렁 쨍그렁
요령이 되어/새벽 이슬 마시며 떠나간 사람들/한밤에 가만히 다녀갔구나/가
뭉들린 대학숲에 흥건한 눈물 - 『수유리의 바람』(『실락원 기행』) 부분

고정희 시의 ‘바람’은 폭압의 현실에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존재로서 등장한다. 이 시에서 “징그러운 바람 소리”는 “갈가리 찢기는 우리 실존 그러안고 뉘 모를 곳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숨결과 정신을 뜻하는 상징으로서 이 바람은 “수유리에 매달려” “쨍그렁 쨍그렁” 요령이 되어 “가뭉들린 대학숲”을 적신다.¹¹⁾ 고정희의 ‘수유리’에는 엄혹한 현실 속에 잠든 자

9) 법궤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는 궤궤”(고정희, 『군불 유감』)으로서 기독교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사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되찾은바 있는데(사무엘상 6~7장), ‘두 마리의 젓소’는 이 부분에서 등장한다. 『군불유감』에서 고정희는 안병무·문동환 두 교수의 해직을 ‘젓먹이 새끼를 두고 법궤 메고 떠나는 두 마리의 젓소’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법궤의 회수 장면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지만, 고정희는 이 작품에서 존경하는 스승들에게 다칠 고난을 노래하고 있다.

10) 이정희는 고정희 시의 “수유리에 떠도는 칼바람소리”가 두 교수(안병무·문동환)의 해직 위로회에서 들은 안병무의 절절한 통곡에서 비롯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정희, 『이론으로의 모험』, 김진호 외, 『죽은 민중의 시대 안병무를 다시 본다』, 삼인, 2006, p.233).

11) 옴은 중동·아랍문화에서 ‘바람’이 숨결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서 쓰인다고 했는

들을 깨우는 이 “징그러운 바람 소리”가 불고, 그 바람에 호응했던 뜨거운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자느냐 자느냐 자느냐”며 잠든 정신을 각성시키는 떠도는 바람 소리의 상징적 경험은 시인에게 ‘수유리’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의 처소로서 기억하게 한다. “가뭇들린 대학숲”을 흔드는 바람 소리와 눈물의 이미지는 한국신학대학 재학 당시 경험한 사건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후 고정희의 시를 지배하는 핵심 모티브로 자리 잡는다.

우리들은 그날도 예배실에 모였다/ 백발이 성성한 老스승은/ 번쩍이는 면도
날을 들더니/ 우리들 고기를 깊숙이 찢렸다 - 『旗』(『실락원 기행』) 중에서

제단 위에 선 스승의 오른 손에는/ 시퍼런 면도칼이 번쩍이고 있었지/ 그는
준엄하게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우리
들 자신에게/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학문의 자유
와 양심을 상징하는/ 여러분의 교기(校旗)가 여기 서 있습니다/ 36년 전에
세워진 이 깃발, / 평화스러운 듯 서 있는 이 깃발/ 이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 <…> / 우리는 모두 모두 비겁해졌습니다/ 그 상징으로 우리 기를 찢겠습
니다
- 『화육제별사 6: 기(旗)를 찢으시다』 중에서

김남일이 한 문장으로 끝낸 ‘교기(校旗) 사건’¹²⁾을 고정희는 매우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교기 사건’이 고정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으로 감수되었음을 웅변하는데, 그녀는 이 시에서 스승의 목소리를 빌어 교기를 찢는 이유와 의미를 밝힌다. “진리의 사도”와 “양심의 증인”이 되어야 할 대학이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

데(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푸른사상, 2009, p.211) 이와 같은 바람의 상징적 의미는 고정희 시의 바람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노창선은 고정희 시의 ‘바람’을 4·19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로서 해석한다(노창선, 『고정희의 초기 시 연구』, 『인문학지』20집,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82).

12) 김남일, 앞의 책, p.199.

면서 스승은 고기를 찢는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화육제별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목이 신의 소명(召命)을 확인하는 설교 속에서 개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양심을 깨우는 스승의 말씀이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스승이 청중들을 거둬서 “임마누엘의 형제들”로 호명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대학생의 양심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각성시키는 행위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스승의 “냉정한 질문”은 고정희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문학을 돌아보게 하는 자기-내면의 목소리, 근원적인 ‘양심의 목소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시를 쓴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비로소 나를 성취해 가는 실존(實存)의 획득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것을 실현(實現)하는 장(場)이며 내가 보는 것을 밝히는 방이며 내가 바라는 것을 일구는 땅이다. 그러므로 시를 쓴다는 것은 내게 있어 가리고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서 내 실존(實存) 자체의 가장 고상한 모습이다. 따라서 내가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작업은 내 삶을 휘어잡는 핵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종의 명에이며 고통이며 눈물겨운 황홀이다. 나의 최선이며 부름에의 응답이다.¹³⁾

시인에게 시란 무엇일까? 10여 년 동안의 시작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결론은 “시인에게 시란 생리작용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로움을 갈망하고 사소한 생리, 그러나 통로가 막힐 때 질식 직전의 고통에 시달리며 노여워하며 오투기처럼 일어서는 신비한 생리, 그것이 시의 힘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시를 쓸 수밖에 없고 또 시가 요구하는 하늘 쪽에 머리를 돌 수밖에 없다. <...> 나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현실과 예술의 혼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¹⁴⁾

13) 고정희, 『누가 홀로 술들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79, 후기.

14) 고정희,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표사.

시를 쓰는 일이 ‘멍에’이자 “눈물겨운 황홀”이며 ‘최선’이자 “부름에의 응답”이라는 고정희의 고백은, 시작(詩作)이 자신의 종교적인 소명의식과 구별되는 별개의 영역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시 쓰는 일이 “나를 성취해 가는 실존(實存)의 획득”이자 “내가 믿는 것을 실현(實現)하는 장(場)”이라는 대목과 관련지어 보면, 그녀에게 시 쓰기는 신앙이나 정치적 실천 행위와 다르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고정희의 고백은, 고통스럽고 질식할 것 같지만 현실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정치현실과 예술의 혼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시 쓰기와 신앙, 그리고 현실-실천 행위를 하나로 인식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신학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배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신학대학이 “문학과는 거리가 있는 환경과 분위기였지만” “세상을 유일회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한 개인의 운명과 세계정신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었다는 회고담은 고정희의 정신세계와 문학의 길에 대학시절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자양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한다. “세상을 유일회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문학과 신앙과 현실-실천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러한 점에서 그녀의 현실 인식과 문학적 실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안병무의 민중신학을 간략하게나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안병무의 민중신학의 특징은 ‘민중’ 개념에 있는데, 그는 ‘민중’의 개념을 성경「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청중들인 ‘오클로스’, 즉 땅에서 쫓겨난 자들로 해석한다. 그리고 지상에 온 예수의 사역을 이들의 해방에서 찾는다. 이는 고정희가 말하는 ‘암 하렛츠’ 즉, ‘땅의 백성들’ ‘한계 밖에 버려진 존재’와 상통하는 개념¹⁵⁾이다. ‘오클로스’로 호명된 안병무의 민중은 「화옥 제별사」에서 “낮익은 사내”의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어둠 속에서/일곱개의 성축이 점화되고 있었다/바로 그때였어/예배실 한구석
 에/낮익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어/피투성이가 된 사내의 알몸엔/군데군데 공
 룡의 이빨자국이/화인(火印)처럼 웃고 있었지/뿔인가 썰물 같은 아련한 목소
 리로/사내는 몇 음절의 유언을 발음하고/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리스도가/“다
 이루었다” 발음하신 것처럼/확 피냄새가 풍겨왔다/독수리 날 듯한 우리의 믿
 음 위로/새로운 불안과 새로운 공포가/미증유의 굉음으로 덮쳐 내렸지/복사
 꽃 지는 그 사월에/진달래꽃보다 더 강렬한 죽음의 징후가/우리의 해안에 정
 박하고 있었지
 - 『화육제별사4: 숨을 거두다』 부분

위의 시에 묘사된 “낮익은 사내”는 “공룡의 이빨자국”으로 “피투성이가 된” 인물이다. 그는 거대한 존재의 폭압에 의해 희생당한 인물로서 시인은 그를 예수와 겹쳐놓는다. “숨을 거두”면서 풍겨온 “피냄새”를 예수의 마지막 유언-“다 이루었다”-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은 “낮익은 사내”의 죽음에 예수의 희생제의적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이 시의 사내는 “새로운 불안과 새로운 공포가”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의 징후”를 예고하는 희생물인 것이다. 사내를 예수에 비유한 것은, 그가 지상의 존재들을 위한 희생물이라는 점, 또 하나는 이후 해방의 역사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이 사내가 “낮익은” 존재라는 것은 시의 문맥을 통해 볼 때 이 인물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이며, 그러한 점에서 이 “낮익은 사내”는 “미증유의 굉음으로 덮쳐 내린” 사건을 통해 ‘민중’으로 부상한 ‘오클로스’(안병무)이며 ‘암하렛츠’인 것이다.

15) 안병무의 ‘오클로스’는 땅을 빼앗긴 존재들로서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회가 터부(taboo)시하는 것에 몸을 담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며 정체성이 부재한 자들이다(김진호 외, 『죽은 민중의 시대 안병무를 다시 본다』, 삼인, 2006, p.20). 한편 고정희의 ‘암 하아렛츠’는 ‘땅의 백성’들이라는 뜻으로 버려진 존재들을 뜻한다. 고정희는 예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영토를 가진 ‘시민’보다는 ‘암 하아렛츠’로 상징되는 민중을 향하고 있다고 보았다(고정희, 『편지 4』, 조형 외, 『너의 침묵에 메마른 나의 입술』, 또 하나의 문화, 1993, p.46).

고정희는 “미증유의 핑음으로 덮쳐 내린” 폭압의 현실 속에 희생된 이 “낮익은 사내”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민중의 수난과 희생을 예수의 그것과 겹쳐놓는 이러한 의식은 안병무의 민중신학 사상을 문학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병무가 어머니 ‘선천댁’과 ‘전태일’을 통해 ‘오클로스’를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처럼, 고정희 또한 폭력적인 현실 속에 고통 받고 희생된 자들에게서 예수의 수난을 본다. 그러한 점에서 그녀의 시에 등장하는 “낮익은 사내”와 ‘이 시대의 아벨’¹⁶⁾ ‘수난의 어머니’ 등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예수의 수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당대 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예수와 겹쳐놓는 고정희의 이러한 시적 사유와 상상력은 한국신학대학과 민중신학에서 영향 받은 그녀의 정신과 삶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내면 성소(聖所)로서의 시적 공간

『화육제별사』는 모두 아홉 편¹⁷⁾으로 구성된 연작시로서 1~6편까지는 ‘예배 공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육제(化肉際)’가 인간의 몸을 입

16) 안병무는 ‘민중’을 어떤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사건을 통해 출현하는 존재로서 이해했다. 그의 저작에 등장하는 어머니 ‘선천댁’과 ‘전태일’은 그러한 의미에서 민중이었다. ‘사건’은 민중이 출현하는 기지인 셈이다. 고정희의 ‘민중’ 또한 이와 비슷하다. 그녀의 시에 민중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시화된 ‘아벨’은 지상의 현실적 사건을 통해 출현한, 지상에서 버려진 자로서의 민중이다. ‘아벨’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장자인 가인에 의해 희생당하는 인물인데, 이 아벨을 고정희는 이 땅으로부터 추방된 민중의 상징으로 인유한다.

17) 『화육제별사』는 ‘성금요일 오후’, ‘우리를 고독한 자에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숨을 거두다’, ‘잔을 비우고’, ‘기를 찢으시다’, ‘연좌기도회’, ‘수유리의 바람’, ‘다시 수유리에서’ 등의 부제가 달린 9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 '神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제의라는 점에서 이 시의 기본적인 구도는 기독교 예배의 형식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기념하는 '화육제'는 예수가 수난을 당한 고난 주간(기독교 용어로 四旬節 기간의 마지막 한 주)에 진행되고 성(聖)금요일에 절정을 이룬다. 성금요일에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배가 진행된다.

고정희가 공부했던 한국신학대학에서도 매년 성금요일 전후로 화육제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열린 예배는 그녀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었다. 화육제를 통해서 그녀는 예수의 수난을 각별하게 사유했으며, 이를 당대 현실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소명과 연관 지어 진지하게 생각하였다. 한국신학대학의 학문적 분위기는 현실과 신앙, 그리고 문학에의 길을 모색하고 있던 고정희에게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대 민중들과 함께 하며 수난의 생을 살았던 예수의 삶은 당시 실천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한국신학대학의 정신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며, 고정희는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문학적 삶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화육제별사」는 한국신학대학의 실천-신학적 분위기와 시인의 “짧은 날의 고민과 갈등, 신념”이 조우하는 내면 발화의 장소였다고 할 수 있다. 예배 공간으로 형상화된 이 시에서 시인은 현실과 역사와 민중을 예수의 수난 속에서 사유하고, 자신을 향한 신의 부르심과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화육제별사」는 신과 인간이 대면하는 성소(聖所)적 성격을 띠게 된다.

성소는 “속세에 속하는 나와 타계에 속하는 궁극적 실재(實在)와의 만남”¹⁸⁾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단순히 건축구조물이나 장소로서의 의미를

18) 기독교의 성소 개념에 대해 김정신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성소는 일반적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단이 마련되었고, 경우에 따라서 동굴, 샘, 고목, 괴석, 높은 산, 구름 등 특출한 자연의 실체들이 선택되고 사용되었다. 처음에는 자연에서

넘어서는 개념이다. 『화육제별사』에서 성소는 ‘예배실’을 통과하여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신과 만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사제의 길에 들어선 시인의 내적인 고민과 갈등이 기도나 독백의 형식으로 표출된다. 시 작품이 자신의 삶과 현실을 신의 뜻 속에서 고민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화육제별사』, 나아가 고정희의 시세계는 성소와 다르지 않다. 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예수의 수난사와 겹쳐놓는 이 시의 내용에서 우리는 실천적인 삶을 사제로서의 자신의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시인의 의식을 인식할 수 있다. 고정희의 신앙은 현실, 민중, 실천적인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의 시는 자신의 삶을 사유하는 자리이자 신과 대면하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화육제별사』는 고정희 시의 이러한 성격과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것이다.

이 땅에 당신의 자비가 임하옵시며/이 땅에 당신의 자유가 임하옵시며/이 땅에
당신의 해방이 임하옵시며/이 땅에 용서가 임하옵시며/(오, 주님 아니옵시다)/
이 땅에 당신의 징벌이 임하옵시며/이 땅에 당신의 심판이 임하옵시며/이 땅이
당신의 분노가 임하옵시며/이 땅에 당신의 저주가 임하옵시며/(오, 그러나 주님
어찌 하리까)/이 땅에 당신의 화해를 내려주시고/이 땅에 당신의 긍휼을 내려주
시고/이 땅에 당신의 선포를 내리소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 『화육제별사2: 우리를 고독한 자이게 하소서』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죽음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때조차도
그 속에서 무력무력 솟아나는 신념과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다. 그리하여 앞으
로도 나는 더욱 더 전폭적으로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갈망

찾고 차별화(개념화)를 통해 장소를 구분(define)하였으나 차츰 건축을 통해 공간화 하였다. 여기서 장소적 의미와 구분하여 성소 공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당 건축 시대에 성소는 성당 내의 한 부분, 즉 성단, 지성소(sanctuary)를 지칭한다.”(김정신, 『교회건축으로서 성전과 성소』, 『가톨릭신학과 사상』, 신학과 사상학회, 2006, p.70).

하기를 꿈꾸며 또한 울울창창 우거진 내 나라의 산천과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안익태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날을 기원하는 자세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다.¹⁹⁾

위의 시는 사제로서의 내면적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가혹한 폭력과 민중의 수난이 이루어지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지상을 향한 분노와 구원에의 기원이 혼재되어 있다. '자비·자유·해방·용서'와 '징벌·심판·분노·저주' 등 상반된 두 기원 내용은 지상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갈등과 절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긍휼'을 요청하는 이 시의 결미는 "이 땅에" 대한 시인의 사랑을 증명해준다. "죽음을 선언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분노의 순간마저도 "무력무력 솟아나는 신념과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시인의 고백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웅변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패한 자신의 조국을 보면서 신의 말씀을 분노 속에 전했던 구약성서의 선지자(先知者)-신의 사제들을 보게 된다. 현실과 신(神)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결코 지상적 삶, 해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제의 모습은 한국신학대학에서 경험한 실천-신학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고정희에게 신앙은 절망적인 현실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든 집요한 사랑의 기지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자들이라면/먼저 우리를 고독한 자에게 하소서/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따르고/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주여, 우리를 고독한 자에게 하소서/고독을 끌어안고 번뇌하게 하소서/(오 고난의 주님)/진리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사랑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자기를 던짐의 길은 고독한

19) 고정희, 『초혼제』, 후기.

길이기 때문입니다/자기를 내어줌의 길은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자유를 따름의 길은 더욱더 고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참으로 고독해보지 않고는/진정한 슬픔에 이르지 못하고/우리가 참으로 고독해보지 않고는/진정한 만남에 이르지 못합니다/우리가 참으로 고독해보지 않고는/진정한 위로 진정한 사랑을/내어줄 수 없습니다

- 「화육제별사2: 우리를 고독한 자에게 하소서」 부분

이 시에서 고독은 “진리를 따르고” “참으로 사랑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다. 앞선 시편들에서 지상은 그야말로 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절망적인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진리와 사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이로운 의지와 신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아무런 희망의 단서가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절망의 현실을 곳곳이 건디는 일이다. 이 시에서 ‘고독’은 자신을 희망과 진리와 사랑의 기지로 삼는 일이다. 기댈 대상이 없고 기대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는 고독한 자일 수밖에 없다. “참으로 고독해보지 않고는 진정한 만남에 이를” 수 없다고 했을 때, 고정희는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고 희망을 놓지 않는 힘, 그것의 원천으로서의 고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진리를 따르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그래서 참으로 “고독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고정희가 슬픔을 안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자들” “아나 키스트”(「순례기1」)라고 호명한 것도, 고독이야말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임을 뜻하는 것이다. 고독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변화의 가능성과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이 신을 향한 기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실천에의 길과 신앙, 그리고 이것을 담아내는 시적 실천이 하나로 통합된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갈등과 번민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출구는 없었다/우리 자신만이 곧 출구임을 알았을 때/우리는 이제 길이 되기로 했다/그것은 수유리의 운명이었다/수유리는 이제 수유리가 아니었다/그것은 길이고 수난이었다 아니/그것은 꿈이고 순절이었다//그런데 친구여/우리가 길이 되기로 작정한 그날/교수들이 우리 손 꼭 쥐어 주던 그날/스승과 제자의 일체감 속에서도/나는 들을 수 있었다/나와 육친들/나와 친구들 /나와 노년의 부모님을 갈라세우는/무서운 붕괴의 소리를 들었지/무섭고 음습하고 아득한 비명을 들었지/(오 야훼님, 꼭 이 잔을 마셔야 하나요?)

- 「화육제별사5: 잔을 비우고」 부분

위의 내용은 예배 공간의 중심인 성만찬 의식-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거행하는 부분에 수록된 대목으로서 화자의 결의와 갈등의 내면이 담겨 있다. 그 내면의 하나는 암담한 현실에서 본인들이 ‘출구’가 되고 ‘길’이 되겠다는 의지이다. 그것이 “수유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엄혹한 현실에서 사제로서의 진정한 삶이 거기에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수유리는 이제 수유리가 아니”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길이 교회에 갇힌 삶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신만이 곧 출구”이고 “길이 되”는 이러한 삶은 현실적 수난을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삶이며, 자기 보존의 욕망을 내려놓는 삶이다. 그 삶은 ‘육친’, ‘친구’, “노년의 부모님”과의 세속적 관계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삶을 포기하는 삶이다.²⁰⁾ 고정희는 예수의 고난의 삶을 생각하는 성찬식의 과정에서 세속적인 관계와 안락한 삶을 끊어내고 “자신만이 출구”가 되는 수난의 길을 본인의 삶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소상하

20) 예수는 참된 신앙인의 길이란 세속적인 관계를 버리는 데서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누가복음 14:26-27). 참된 신앙은 육체적이고 편안한 삶에 있지 않음을 예수는 강조하고 있다.

게 분석하자면 “자신만이 출구”라는 표현은 고난의 삶을 자기의 것으로서 분명히 받아들일겠다는 책임 있는 소명의식의 발현이며,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유예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서 감수하겠다는 결연하고도 확고한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 시의 결미 부분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앞에 둔 예수의 말 “꼭 이 잔을 마셔야 하나요”를 다시 되새기는 것은 예수의 수난의 삶을 자신의 길로서 사유하는 고정희의 내면을 재삼 생각하게 한다. 「화육제별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신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했던 내밀한 성소의 공간이었던 셈이다.

4. ‘수유리’의 삶과 포기할 수 없는 기원

앞에서 살펴보았던 한국신학대학에서의 ‘사건들’은 이후 대학의 삶과 사제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는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자의식이 보다 뚜렷해지고 신학도로서의 삶과 현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긴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수난의 길을 구체적인 자신의 삶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결단의 문제였다. 이는 한국신학대학의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된 것이었는데, 고정희가 ‘수유리’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화했던 이유 역시 본질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나는 저물고 있었다/행복을 탐낸다는 것이/죄악처럼 두려운 오월/자
 함으로 흥분된 우리는/바람이 누그러진 오월의 황혼 속에서/금관의 예수를

21) 고정희가 여러 시편에서 육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고향의 가족들에게 살가운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합창하거나/본회퍼의 죽음을 목상하다가/이내 따뜻한 기숙사로 돌아와/애꿨은 시트를 수없이 찼었다/(진리·자유·정희·평화)/시트는 우리들의 화선지였다/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친구들은/고통의 제왕이 되어/교문 밖으로 사라져 갔고/남아 있는 우리는 길들인 두뇌로/40일 동안의 연좌기도회를 열었다/그 40일 동안 날마다 계시판엔 남은 자의/이름이 게시되었지 <...> 자정이면 나도 기도실로 들어갔다/바람에 유리창이 덜컹이고 있었지/허허 웃는 촛불에 말을 사른 뒤/빛이 절망임을 깨달은 우리는/그옥이 흐느끼는 촛불 앞에서/그의 누추한 환영을 보았다 <...> 나는 보았고 알았고 깨달았지만/결코 내 길과 결혼하지 못했다/나는 결혼하지 않았으므로/‘불임’의 고독을 상흔처럼 지녀야 했다.

-「화육제별사7: 연좌기도회」 중에서

이 시의 기점이 된 ‘그것’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하나는 고정희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던 ‘삭발 사건, 교기 찢기 사건, 그리고 두 교수의 해임’이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예배’를 뜻한다. 위의 부분은 사제로서 수난의 길을 가겠다는 고백이 있는 이후 그러한 정신이 약화되고 있는 내면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 “나는 저물고 있었다”는 이 시의 도입부는 바로 그러한 내면 상황을 시사하는데, “금관의 예수”나 “본회퍼의 죽음” 등으로 상징되는 폭력적인 권력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저항의 삶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 기술되고 있다. “애꿨은 시트를 수없이 찼”는 행위는 폭력의 현실 속에서 무력하게 살고 있는 이러한 삶에 대한 자책이자 자학인 셈이다. 연이은 학내사태 이후 시작된 “40일 동안의 연좌기도회”에서 화자가 깨달은 것은 빛으로 상징되는 신앙인의 삶에 대한 현실적 무력감이자 아무런 실천력도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독”이었다. 그것은 구체성을 갖지 못한 결연한 의지와 정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여/내가 수유리를 떠나려 했을 때/수유리의 바람이 슬땀 물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그냥 숲정이나 떠도는 공기?/너는 원귀들의 춤
 을 아느냐?/무덤이면 다 무덤이라 생각하느냐?/네 정신의 무덤은 어디?
 <…> 수유리의 바람은 그들의 기침소리/수유리의 바람은 그들의 인기척/수
 유리의 바람은 그들의 절규/수유리의 바람은 그들의 함성 <…> 수유리의 바
 람소리를 듣는 사람들아/누구도 더 이상의 숙면을 보류한 채/석탄불 옆에서
 예레미야서를/읽어야 하리 -『화육제별사8: 수유리의 바람』 중에서

이 시에서 ‘수유리’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신학
 대학으로 상징되는 실천적 신앙인의 삶이고, 나머지 하나는 4·19묘역으
 로 상징되는 민주 열사들의 죽음이다. 고정희 시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
 의 하나인 “수유리의 바람”은 이 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녀가 현
 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중요한 각성의 상징이 된다. 성서에서
 바람, 즉 ‘루아흐’는 영(靈)을 뜻하는 어휘로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바람
 의 신비한 힘을 신과 관련시켰다. 그들은 바람 속에서 신을 보고, 바람의
 움직임 속에서 신의 활동을 보았다.²²⁾ 고정희가 듣는 수유리의 바람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녀는 “수유리의 바람”에서 민주영령
 들의 ‘인기척’과 ‘절규’와 ‘함성’을 듣는다. 이 강렬한 내면은 다시 사제로서
 의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여기에서 시인이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은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예레미야가 조국의 부정적 현실을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것처럼 고정희 역시 자신의 내면으로 불어오는 저
 민주 영령들의 ‘절규’와 ‘함성’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녀에게 “수유리의 바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향(定向)해주는 내면
 의 소리이자 신앙-양심의 소리이다.²³⁾ ‘수유리’가 고정희에게 현실적으로

22) 이양구, 『루아흐-영(1)』,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9, p.213.

23) ‘수유리’의 상징성은 고정희의 전기적 이력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요한 처소였다는 것은 여러 시편들에서 확인된다.

이제는 수유리를 떠나야 한다고/은밀히 내 심중에게 말하고/은밀히 수유리의
바람에게도 말했습니다/이제는 수유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한국신학대학
푸른 청솔에게 말하고/4년 동안 조기가 계양되었던/수유리 하늘에게도 귀땀
했습니다/이제 수유리는 수유리가 아니라고/경기도 양산리를 향해서 한 번
말하고/찢어진 우리의 교기를 향해서도 한 번/크게 외쳤습니다/연회동에서
13평 전세아파트를 계약하고/길일을 따져 이삿날을 잡았습니다/그런데 친구
여/나는 수유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계약금을 날리고/아파트의 자유를 날려
버리면서/나는 수유리의 흡인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그리고 나는 깨달
았습니다/개인주택 지하 1층에 살면서/에프엠 수신이 불가능하다 해도/하루
세 시간씩 출퇴근길에 파김치로 흔들린다 해도/수유리에 묻은 내 꿈을 버릴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수유리에 뿌리내린 이 나라의 기원/눈부시게 휘날리
는 날을 위하여/뜻 맞은 우리 몇 사람/수유리에 모여 앉아/뜨겁고 몽클한 민
음을 포개며/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 함을 알았습니다

- 「다시 수유리에서」(『눈물꽃』) 전문

「화육제별사」를 쓰고 난 지 3~4년 후에 쓴 이 작품은 고정희에게 ‘수유리’가 어떤 곳인지를 매우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것은 ‘수유리’가 단순한 시적 상징을 넘어 그녀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음을 시사한다. “지하 1층”이어서 “에프엠 수신이 불가능하”고²⁴⁾, “계약금을 날리고” 출퇴근 하는 데 “하루 세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유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은 고정희에게 ‘수유리’가 얼마나 중대한 정신적 처소였음을 암시한다.

취업을 한 뒤에도 상당 기간 수유리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무른다. 이는 그녀에게 ‘수유리’가 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노창선, 「고정희의 초기 시 연구」, 『인문학지』,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81).

24) 고정희는 클래식 음악에 매우 조예가 깊었는데, “에프엠 수신”은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수유리에 묻은” 꿈, “수유리에 뿌리내린 이 나라의 기원이 눈부시게 휘날리는 날”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과 의지의 소산인데, 여기에서 “수유리에 뿌리내린 이 나라의 기원”은 4·19묘역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염원과 한국신학대학과 연관된 사제로서의 간절한 기도를 뜻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와 해방의 현실을 향한 고정희의 간절한 염원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

결국 그랬지, 친구여/나는 수유리로 다시 돌아와/무교회주의자가 되고/수유리에 떠도는 칼바람소리와 만나/칼바람과 살기로 약속하였다/오 수유리에/유엔 평화깃발을 꽃기로 했다/우렁우렁 사랑가 풀어내기로 했다/그렇게 해서라도/저 징그러운 바람소리 잠재우기로 했다/

- 『화육제별사9: 다시 수유리에서』 중에서

『화육제별사』의 결미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자신의 삶의 행로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유리로 다시 돌아와 무교회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현실 교회 속에 갇힌 ‘교회주의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삶으로서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의지, 예수의 수난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것은 “수유리에 떠도는” “칼바람과 살”아가는 삶으로서, “가난한 거리와 버림받은 이웃과 냄새나는 유대의 거리 그 천한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히브리전서』, 『이 시대의 아벨』)을 외면하지 않는 현실주의 신앙의 삶이다. 이는 ‘수유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한국신학대학의 실천/해방신학을, 그리고 사랑과 평화를 위해 수난의 삶을 살았던 예수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서 환대하는 삶이다. 실제로 고정희는 죽기 전까지 민중과 함께 거리를 지켰으며²⁵⁾

25) “소설가 김영현이 본 고정희의 마지막 모습은 종로에 있었던 국민대회 때 거리에 가득찬 최루탄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였다.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고 개혁을 위

현실-현장의 체험을 시로서 형상화하였다. 『화육제별사』는 “자신만이 곧 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고정희 시학의 양상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5. 나오며

고정희의 초기시 『화육제별사』는 폭압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던 젊은 날의 시인의 정신-지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현실과 신앙을 통합하여 자신의 삶으로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모색했던 한 정신의 행방을 보게 된다. 『화육제별사』는 고정희의 초기작이지만, 이 작품에는 고정희 시를 가로지르는 ‘수유리’의 현실적 배경과 의미가 담겨 있다. ‘수유리’는 고정희 시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민중·여성’의 기원(起源) 공간으로서 현실주의-기독교 영성 시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희 시세계의 발원점이다. 『화육제별사』는 고정희 시 정신의 핵심 거소(居所)라고 할 수 있는 ‘수유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 경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인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글은 고정희 시의 발화점이면서, 이후 시세계의 향방을 예고하는 ‘수유리’의 구체적 의미를 『화육제별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민주영령들이 묻혀 있고 한국신학대학이 있던 ‘수유리’는 고정희의 시, 그녀의 정신세계를 관통하는 원체험의 장소였으며, 그의 삶과 문학은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시를 쓰던 고정희는 우아하고 고상한 여류문인이 아니었던 것이다”(송지현, 『‘현실’과 ‘여성’ 일깨운 구도자 시인-고정희론』, 『손광은 외, 우리 시대의 시인 연구』, 시와 사랑, 2001, p.514).

인 장(場)이었다. ‘수유리’는 기독교-민중문학의 선구자로서 고정희 시의 정신적 기초를 제공한 구체적인 현실 장소이자 상징 공간이다. 시인이자 신학도로서 당대 현실과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각성하는 현실적 과정을 소상하게 그린 『화육제별사』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현실, 신학과 문학이 조우하는 의미 있는 사례를 보게 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고정희,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평민사, 1979.
 _____, 『눈물꽃』, 실천문학사, 1986.
 _____, 『실락원 기행』, 인문당, 1981.
 _____,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 지성사, 1983.
 _____, 『초혼제』, 창작과 비평사, 1983.

2. 논문 및 단행본

- 고정희, 『예수와 민중과 사랑 그리고 詩』, 기민사, 1985.
 구미정, 『태기-되기 『선천택』에 나타난 안병무의 ‘민중구원론’ 다시 읽기』,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2011.
 김남일, 『민중신학자 안병무 평전』, 세계절, 2007, pp.199-200.
 김문주, 『고정희 시의 종교적 영성과 “어머니 하느님”』,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1, p.133.
 김정신, 『교회건축으로서 성전과 성소』, 『가톨릭신학과 사상』, 신학과 사상학회, 2006, p.70.
 김정환, 『고통과 일상성의 변증법』, 『초혼제』, 창작과 비평사, 1983.
 김진호 외, 『죽은 민중의 시대 안병무를 다시 본다』, 삼인, 2006, p.20, 233.
 김창주, 『호세아 ‘하나님 지식’과 히브리 사유』,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2009.
 김태영, 『본회퍼의 교회론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노창선, 『고정희의 초기시 연구』, 『인문학지』,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p. 81-82.
 민영진, 『성소에 나타난 예로티시즘7-지성소, 거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못 들어가게 하고, 못 보게 한 것일까』,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2008.
 박영정, 『1970년대 기독교 연극 연구』,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2000.
 박완서 외, 『자유로운 여성』, 열음사, 1984, p.139.
 손광은 외, 『우리 시대의 시인연구』, 시와 사랑, 2001, p.514.
 이양구, 『루아흐-영(1)』, 『기독교사상』, 대한기독교서회, 1989, p.213.
 조용미, 『그대, 아름다운 사람』, 『현대시학』, 1991.

조 형 외, 『너의 침묵에 매마른 나의 입술』, 또 하나의 문화, 1993, p.46.

편집부, 『한국신학대학 35년의 발자취』 부록, 『신학연구』,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1974.

에드워드 펠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p.102.

Abstract

A Study about 'Suyuri' of Ko Jeong-hee's poem
- focusing on 'Hwayukjebyeolsa' -

Park, Seon-Hee · Kim, Mun-Joo

'Suyuri' is a space of origin of 'Christianity, People and Women', the core spirits of Ko Jeong-hee's poem. This article, focusing on "Hwayukjebyeolsa", reviews on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poetic spirit of Ko Jeong-hee. 'Suyuri' is a location of Hankuk theologycal University(now : Hanshin University), a base of Minjung theology in the 1970's and an origin of the poetic world of Ko Jeong-hee, which is realism-Christian spiritual poetics. 'Suyuri' is a real place with the poet's specific experience as well as a symbolic space to have continuous influences on her spiritual world. "Hwayukjebyeolsa" is a poem to reveal specific contents and meaning of 'Suyuri', where is a core location of Ko Jeong-hee's poetic spirit. Specific meaning of 'Suyuri', which is a starting point of Ko Jeong-hee's poems and announces her poetic direction, can be shown in "Hwayukjebyeolsa". The process of seeing people at that time from the passion of Jesus, awaking to vocation from God and responding to it is embodied in the poem. In this poem about description of her specific motivation to think of the reality at that time and her own life as a poet and a theologian student, we notice a meaningful case of the encounter between Christianity and reality, and theology and literature. 'Suyuri' is a core real/symbolic space which provided spiritual foundation for poems of Ko Jeong-hee as leader of Christian people's literature in the 1980's.

Key Word : Ko Jeong Hee, Suyuri, place, Hankuk Theological University, People, Minjung Theology, Hwayukjebyeolsa, Holy Place

박선희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주소 : (712-240) 경북 경산시 신천길 25-2

전화번호 : 010-3693-3964

전자우편 : sunhi27@hanmail.net

김문주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전화번호 : 010-9909-7522

전자우편 : moon171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4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8일 게재 확정됨.